

唐 李賢墓 壁畫의

新羅使(?)에 對하여

金 元 龍

지난十一月二十三日九州大學의 田村圓澄교수에게서 받은「北九州市立美術館 開館記念 中國漢唐壁畫展」圖錄(東京一九七四)에 李賢墓壁畫中の 外國使臣圖가 있고 그 속에 雙角飾帽을 쓴 新羅使臣같은 人物이 섞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 實은 이에 관해서는 近者에 日本考古學者로부터 듣지 않았으면 어디 州에서 본 것 같은 생각이 나는데 도무지 기억이 확실치 않다. 그러나 原稿期日이 促迫하고 달리 갑자기 起稿할 資料로 없어 粗雜하고 體裁를 갖추지 못한대로 紹介文을 써서 責任을免할까 하는 것이다.

李賢(六五四—六八四)은 唐의 高宗과 則天武后의 第二子이며 어머니 武后의 미움을 사다가 武后 即位後 賜死되었다. 그러나 아우인 李顯이 中宗으로 即位한 뒤 七〇六年 高宗則天武后의 乾陵域內(陝西省 乾縣)에 陪葬되고 七一年에는 章懷太子로 追贈되었다. 이 陪塚은 方臺形封土에 前後二室과 南北으로 길게 뻗어서 地上으로 나가는 羨道가 있고 羨道에는 따로 左右各三個, 合六個의 側室이 있으며 後室에서 羨道끝까지의 길이 七一m、面積四百平方미터에 達하고 있다. 壁畫는 後室에서 羨道全部에 걸쳐 狩獵·儀仗兵·宮女·樂舞·外國使節 등 約 五〇餘幅이 現在 남아 있으며 그림들이 正確하고 高實의 이어서 唐代의 文化生活 등에 관한 좋은 資料로 되어 있다.

二

問題의 外國使節圖는 羨道の 中間部左右에 各三人씩 合六人이 그려 있는데 여기 紹介하려는 것은 東壁部分으로서 畫面의 크기는 高一·八七m 幅二·四五m이다. (圖一)

畫面은 向左側에 三人의 唐文官을 配置하고 그들 右側에 三人의 外國使臣이 그려 있다. 그림은 굵은 墨線으로 그려진 線畫이면서 朱紅 褐·灰·黑色 등으로 淡彩를 加하고 있고 그것이 人物들의 個性 있는 表情描 寬寫動感 있는 立體的 構圖와 함께 畫面全體에 조용하면서도 迫力 있는 生動感을 주고 있다.

三人의 外國使臣은 하나는 禿頭·曲毛·高鼻의 틀림 없는 西域人이고 그 옆은 大袖袍·大口袴·雙角飾帽의 東洋人、뒤에는 鬘帽子·鬘바지에 灰色망토를 걸친 北邊遊牧人 같은 人物이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가운데 雙角飾帽을 쓴 사람이며 이 圖錄 卷尾에「漢唐古墳壁畫의 흐름」이라는 概說을 쓴 九州大學의 岡崎교수는 그 속에서 이 使節圖에 言及、「이 속에 日本의 使節이라고 생각되는 人物이 있으며 이것이 정말이라면 大寧年間(七〇一—七〇四)에 遣唐使였던 粟田真人 등을 그렸을 가능성도 생기게 된다. 北京의 歷史博物館에서의 展觀時 案內해 준 王治秋先生은 이것은 小川大使(駐中日大使)의 先輩였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여 웃었다」고 말하여 이 人物의 日本人 가능성과 中國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專門家가 있음을 指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 日本人이라고 생각되는 人物이 이 紹介文에서 문제 삼으려는 東壁人物을 말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으나 西壁人物은 圖示되어 있지 않아 뭐라고 말할 수 없다.

三

지금 紹介하려는 東壁上의 人物을 仔細히 說明하면 그는 얼굴이 둥글고 키가 작고 가늘고 위로 올라간 눈 가는八字수염、若干 突出한 입、 두꺼운 입술 등 韓國이나 日本의 特色을 내어 畫面에 나타난 眉目秀麗·長身の 中國人과는 區別하려고 한 畫家의 努力이 보이고 있다(圖二·三)



圖 1. 李賢墓 羨道東壁 外國使節圖



圖 3. 圖 2, 人物 (透模圖)



圖 2. 圖 1 的細部, 雙角形飾帽 人物圖

이使臣의 머리는 반반히 빗어 올려 상투를 짜고 그 위에 三角形의 頭巾(幘) 形帽을 쓴 모양인데 이 帽子는 面은 朱色의 五角形이고, 後面은 黃褐色 三角形을 둥글게 맞붙히고 前後面의 接合部에 雙角形立飾이 꽂혀 있다. 이렇게 帽子가 앞뒤의 두部分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나 거기에 雙角形立飾이 꽂혀 있는 것이나 古新羅時代의 金冠과 함께 나오는 所謂 內帽 또는 內冠과 꼭 같고 古新羅時代 雙角飾帽가 時代가 내려오면서 變形했거나 아니면 純金으로 써 만든 特製品의 實地 原形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雙角式帽은 新羅의 特色이고 그래서 日本書紀에 는 伽耶에서 온 어떤 사람은 「額有角人」이라고 부르고 있다. ① 新羅金製 또는 金銅製幘形帽에서 보는 雙角式 장식은 그것이 卍角形인지 또는 鳥羽形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議論의 餘地가 있으나 天馬塚에서 二十四개의 牛角 實物이 副葬品櫃에서 나온 것이나 湖巖所藏의 傳高靈出土 金冠의 附屬品으로서 翡翠製牛角形 장식이 나온 것은 ② 冠帽立飾이 牛角形에 由來하고 있다는 見解를 보다 妥當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 雙角帽은 高句麗의 帽子와도 形態上 通하는 點이 있으며 高句麗에서도 三角形의 幘形帽을 썼고 大人은 鳥羽二개를 꽂고 있었다(圖六). 그러기 때문에 이 壁畫人物이 쓴 雙角帽가 高句麗式의 雙羽帽일 가능성도 전혀 排除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雙角이건 雙羽이건 韓國式 帽子인 것은 擧論할 餘地가 없다.

한편 이 三角形帽가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넓은 布纒을 달고 턱 밑에서 結縛하고 있는데 그 끈이 귀를 가리지 않도록 中間部를 갈라서 귀를 露出시키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그리고 이 귀가 나오도록 中間을 가른 끈은 梁職貢圖에 나오는 百濟國使(圖四)의 그것과 같은 것이 매우 注目되며 高句麗壁畫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高句麗에서도 같았을 것이 分明하여 여기 壁畫人物이 韓國人임을 가장 正確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古代韓國使節들의 冠帽가 當時의 唐人눈에는 奇異하고 우스웠는지 다음과 같은 逸話가 있다. 即 唐의 李子雄이 來朝한 新羅使節에게 그 冠制의 由來는 뭐냐고 비꼬아서 물었더니 新羅使가 皮製帽에서 온 것인데 大國의 선비가 皮帽도 모르느냐고 화를 냈다. 그래서 子雄이

中國에 禮가 없어서 外國으로부터 배워온다고 對하였더니 新羅使는 中國에 到着한 以來 當신 말 以外는 無禮를 보지 못하였다고 應酬했다. 子雄은 이때 失言으로 罷免되었다. ③

新羅의 雙角式幘形帽가 매우 特色있는 點, 그것에 대한 中國人의 印象, 新羅人의 堂堂한 氣概 등을 함께 나타내는 興味 있는 逸話이다.

帽子 다음에 衣服을 보면 上衣는 소매는 넓으나 左衽의 半코트에 허리 끈을 돌린 것이고 上衣下端에는 三段의 襖(색동)이 달려 있어 基本的으로는 (圖六)에서 보는 따위의 高句麗服이고 바지는 高句麗壁畫에 나타나는 아래를 잘라낸 것과는 달리 넓은 통바지로 끝나고 있으나 이것은 北史 高句麗傳에서 「大袖衫과 大口袴를 입었다」고 하는 記事④와 같으며 이 半코트式 上衣와 긴 바지는 中國衣制와는 뚜렷하게 다르다.

특히 이 壁畫人物을 梁職貢圖에 나타나는 百濟使節(圖四·五)④과 比較해 보면 넓은 것, 上衣와 바지의 모습 등, 특히 그 下端에 襖을 돌린 모습등이 꼭 같은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다른 것은 百濟人은 冠앞에 武寧王陵에서 나온 것같은 立花飾을 꽂고 있는 點 뿐이다. 또 신발도 壁畫人物의 그것은 끝이 크게 들리고, 黑色인 中國 것과 달리 큼직하고 끝이 뾰족하고 黃褐色이어서 앞서 北史에서 말하는 高句麗의 黃華履임을 말하는 듯하다.

한편 梁職貢圖에 나오는 倭國使節(圖七)에 대해서는 故李弘植博士는 屢次이고 現實性이 없으며 當時의 一般 平民像을 想像으로 그린 것이 아닌가 하였다. ④ 사실 그렇게 생각되는 點도 있기는 하나 兪물에 턱수염이 있고 팔에는 腕絆, 다리에는 脚絆을 돌리고 있는 點 등 日本人의 特徵을 잘 잡고 있는 點도 있으며 이것이 정확한 使節의 衣服이 아니라 하더라도 韓國系 衣服과는 基本的으로 다르다는 것은 論議의 餘地가 없다.

四

이렇게 李賢墓의 壁畫에 나타나는 問題의 人物은 어느 모로 보나 古代 韓國人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 무덤의 年代로 보아 이 사람은 統一新羅時代의 사람이라고 判斷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壁畫의 作



圖 4. 梁職貢圖 百濟國使 (據 文物 60-7)



圖 5. 梁職貢圖 百濟國使 (透模圖)



圖 6. 舞踊塚 舞男圖

家가 스스로 그러한 外國使臣들을 스스로 보고 스킷치해 두었다가 壁畫의 粉本으로 했는지도 明言할 수 없고 도리어 中國의 朝廷에서 흔히만 들어지는 이러한 職貢圖의 寫本을 얻어 寫本으로 하였을 可能性이 있다. 그러나 이 古墳壁畫가 人物描寫에서 特히 뛰어난고 있는 點으로 보아 이 壁畫의 作家는 스스로 그러한 外國使臣들을 스킷치해서 職貢圖를 단들어본 經驗이 있는 當代의 名家일 可能性도 크다.

이렇게 몇 가지 可能性은 생각되지만 寫本을 粉本으로 하였을 경우도 거기에 中國使臣도 나타나 있는 以上數百年前의 古代寫本을 그대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며 적어도 이것이 唐代의 것이니 만큼 그 職貢圖의 原本은 唐朝에 들어서서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보편이 壁畫의 原本年代는 壁畫製作時에서 百年以上이 될 수 없고 七世紀의 外國使臣의 實相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 나타난 韓國人은 三國時代末期에서 新羅統一初期의 사람이라고 해서 잘못이 아닌데 그 帽子的 形態로 보아 百濟를 除外한 高句麗 아니면 新羅人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꼭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는 것은 斷言하기 힘들며 高句麗使節을 나타낼 수도 있고 反對로 古新羅人 또는 七世紀後半 以後의 統一新羅人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다. 問題는 帽子的 雙立飾이 牛角이나 鳥羽냐에 달려 있는데 牛角形같기도 하고 鳥羽形같기도 해서 現在로서는 決斷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건 七世紀의 韓國에는 基本的으로 共通된 服制가 三國間에 通用되었고 그것은 當時의 中國史家들이 三國의 服制를 「畧同」이라 하고 있는 點으로도 首肯이 가는 것이다.

五

以上 頭序 없는 글로 李賢墓 壁畫의 使節圖 中の 雙角飾帽人物이 七世紀의 古代韓國人이며 高句麗 아니면 新羅의 使節일 可能性이 있음을指摘하였다. 梁職貢圖 中の 百濟國使圖와 함께 古代服制를 生생하게 알려주는 貴重한 資料로서 紹介하여두는 바이다.



圖 7. 梁職貢圖 倭國使 (據 李弘植論文)

註

- ① 拙稿：「傳高靈出土 金冠의 考査」美術資料一五 (一九七一、一一)P.2
北史 高句麗傳
- ② 人皆頭著折風形如弁 士人加二鳥羽 (中略) 服大袖衫、大口袴、素皮帶、黃華履。
- ③ 海東釋史 卷二十 (石宙善 韓國服飾史(一九七二) p.25 所引
新羅管遣使朝貢 李子雄至朝堂與語 因問其冠制所由 其使者曰皮弁遺像 安有大國君子 而不識皮弁也 子雄因曰中國無禮 求諸四夷 使者曰自至已來 此言之外 未見無禮 憲司以子雄失詞坐免
- ④ 李弘植 「梁職貢圖 論考」 李氏 韓國古代史의 研究 (1971) p.p. 385-427
이 職貢圖는 梁元帝(五五二~五五四)時의 職貢圖의 復寫本으로 北京歷史博物館所藏品이다.